

# 학문으로서 국악학의 기틀을 다진 만당 선생

황 준 연 | 서울대 국악과 교수

만당(晩堂) 이혜구(李惠求) 선생은 당신의 연구를 회고하는 글 “문제의 산을 넘고 넘어”에서 “우연히 문제를 발견하고, 우연히 해석의 단서를 발견하는 재미로 지금까지 문제의 산을 넘었고, 앞으로도 여전히 넘고 싶다”라고 일생 동안 공부한 것을 소박하고도 겸손하게 피력한 바 있다. 이 한마디에서 선생의 고매한 인품과 일생 동안 올곧게 지켜 온 그의 공부에의 한없는 열정을 엿볼 수 있다.

## 학창 시절과 방송인 시절

선생은 1909년 1월 한산(韓山) 이우규(李禹珪)의 넷째 아들이자 막내로 출생하였고, 경성고등보통학교 부속초등학교를 수료하였다. 보통학교 시절이던 열 살 때 동네에 나가지 말고 집안에서만 놀라고 그의 부친이 사준 풍금(오르간)으로 음악에 조우하였던 그는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 시절에는 셋째 형님을 따라 바이올린을 배우기도 하였으나 대학 입학시험 준비로 바이올린 공부를 중단하였다. 1926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영문과에 입학하였고, 대학 시절에는 바이올린을 배운 경험을 살려서 경성대학 관현악단과 중앙악우회 관현악단에서 비올라 주자로 활동을 하게 된다. 작곡가 채동선(蔡東鮮) 등과 함께 활동한 이 단체는 비록 동호인

성격의 것이었지만, 당시 서양음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활동으로 그가 후에 국악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양음악에 대한 이론과 실기에 관한 또는 비교음악학적인 시각에 대한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고 할 수 있다.

1931년 대학을 졸업하고 1년의 낭인 시절을 보낸 후 1932년 경성방송국(JODK)에 입사하였다. 선생은 공식적으로 방송국의 아나운서였지만, 동시에 프로듀서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경성방송국은 1933년부터 이른바 이중 언어 방송을 시작하였다. 곧 초창기에 일본어 방송으로 동경방송을 중계하는 역할에 그쳤으나, 이때부터는 한국어와 일본어로 방송하는 프로그램으로 확실하게 나뉘어지게 된 것이다.

그는 ‘음악, 연예, 편성 담당’으로, 양악을 비롯해서 조선음악(국악) 및 어린이 프로그램의 담당이었다. 당시 대중들에게는 조선음악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그는 국악을 잘하는 기생 등을 초빙하여 국악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는데, 이런 것은 어찌 보면 당시 전통 음악인들의 사회적 위치를 격상시키는 데도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해설하는 과정에 서 국악에 대한 큰 흥미를 갖게 된다. 강태홍의 가야

“

그는 '음악, 연예, 편성 담당'으로, 양악을 비롯해서  
조선음악(국악) 및 어린이 프로그램의 담당이었다.

강태홍의 가야금산조 레코드를 틀어 놓고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장단을  
공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차츰 이동백 같은 당대의 명창과 국악인들이 방송국에 오면  
누구나 붙잡고 꼬치꼬치 이런저런 음악에 관한 의문을 탐문하는 현장 조사와  
한편으로는 고서적을 뒤지고 고악보(古樂譜)를 분석하는 문헌 고찰을 병행하며,  
독학으로 국악을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

금산조 레코드를 틀어 놓고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장단을 공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차츰 이동백 같은 당대의 명창과 국악인들이 방송국에 오면 누구나 붙잡고 꼬치꼬치 이런저런 음악에 관한 의문을 탐문하는 현장 조사와 한편으로는 고서적을 뒤지고 고악보(古樂譜)를 분석하는 문헌 고찰을 병행하며, 독학으로 국악을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로 “양금신보(梁琴新譜)의 4조(四調)와 “무악(巫樂)연구”, “여민락고(與民樂攷)”, “한국의 구기보법(舊記譜法)” 같은 초기의 논문을 발표하게 된다.

선생은 한편으로 당시 JODK 방송 관현악단을 만드는 데도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흥난파를 지휘자로 초빙하여 관현악 운동을 활성화하여, 이것을 계기로 서양식의 초기 가곡들과 가요 등이 만들어져 대중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흥난파의 '봉선화', 이홍렬의 '어머니 마음'도 그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진 곡들이다.

선생은 1945년부터 1947년까지 한동안 미군정치하의 방송국의 최고 책임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해방 후는 사회가 극도로 혼란하고, 좌우의 갈등이 노골화되었을 시절이었으나, 그는 당시 방송인이자 언론인으로서 슬기로운 판단과 대처를 하였다. 사실 그의 국악 학자로서의 역할과 업적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송인으로서의 그의 업적

이 가려진 측면도 있을 듯 싶다.

## 방송인에서 국악 학자로

혼란한 시기의 방송국의 책임 업무에 점차 염증을 느끼고 공부하고 싶은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선생은 1947년 방송국을 버리고 자청하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직장을 옮기게 된다. 안정된 연구 활동을 하게 된 선생은 곧 1948년 5월부터 장사훈, 성경린 선생 등과 함께 학회 활동을 하기 시작하여 인문학의 거목들인 민영규, 이병기, 정병욱 선생 등의 연구 발표를 청하는 등 매월의 연구 발표회를 이끌어 가는데, 이것이 발전하여 1954년 10월의 '한국국악학회'의 결성으로 이어졌고, 그는 초대 회장으로 봉사하였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봉직하던 중, 1957년 그의 첫 연구 논총이자 한국 최초의 단행본 논문집 『한국음악연구』가 출판되었고, 이러한 그의 연구 업적으로 1959년 3월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최초로 국악을 연구한 논문으로 문학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4월에는 당시 학장이던 현제명 선생의 도움을 받아 드디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국악과를 개설하게 되었다. 국악 교육과 연구의 획기적 계기가 된 서울대학교의 국악과의 개설과 함께

선생은 초대 국악과장을 맡았고, 말할 나위 없이 이를 계기로 한국음악의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국악과가 창설된 직후의 1960년대는 한국의 경제가 아직은 어려운 시기였다. 이 때 선생은 외국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 차례 해외의 학술대회에 나가 한국음악의 우수성을 알리기 시작한다. 또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의 작곡가나 이론가들에게 한국음악을 친절하게 알리는 데도 기여를 했는데, 초기 국악 창작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미국 작곡가 루 해리슨(Loul Harrison)의 '무궁화 새당악'을 발표하였고, 그의 여러 배려에 감사한 알랜 호바네스(Alan Hovhannes)는 가야금 협주곡 형태의 '교향곡 16번'을 만들어 그에게 헌정하기도 했다. 또한 1964년 조선조 궁중음악의 유산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국립국악원의 첫 해외 나들이인 일본 공연을 할 때, 선생은 음악 감독과 같은 역할로 해방 이후 한국음악을 일본에 바르게 알리는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이 기간은 선생의 국악 연구가 보다 심화된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1966년까지 발표된 논문 21편은 그의 두 번째 논총 『한국음악서설』로 출판되었다. 이 책에는 영문도 수록되어 그의 이론이 미국과 유럽 등의 외국의 학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결과 그의 회갑 논문집 『이혜구 박사 송수 기념 음악학논총』(1969)에는 수많은 외국 저명 학자들의 글이 실리게 되었다.

1970년부터 선생은 오랫동안 고사해 오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학장에 취임하여 봉사하였고, 얼마 후 1974년에 정년 퇴직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서 오히려 그의 연구는 박차를 가하게 된다. 1971년 사단법인 한국국악학회 저널 『한국음악연구』의 창간호를 출판하였고, 1973년에는 『세종장헌대왕실록 악보해제』라는 역저를 발표했다. 1973년에 예술원상을 수상하였고, 이듬해에

는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1975)이 되었다. 한편으로 이 시기에는 일본의 기시베시게오(岸邊成雄) 등의 학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동아시아 음악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려악연구회'를 조직하였고, 한국측 위원회 대표위원을 맡았다. 1976년에는 15편의 논문을 묶은 세 번째 논문집 『한국음악논총』이 출판되었다.

1980년에는 조선조 최고의 음악 이론서 『악학궤범(樂學軌範)』이 오랜 기간의 노력으로 역주되어 『국역 악학궤범』으로 출판되었고, 1981년에는 그의 최초의 영문 논문집 *Essays on Korean Traditional Music*이 그에게 배우고 감화된 세계적인 한국음악전공 교수인 로버트 프로바인(Robert Provine)에 의하여 번역 출판되었다.

1981년 서울에서 세계 유수의 학술 모임 '제 26차 국제민속음악학회 및 민속음악제'가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개최되었다. 한국에서 이처럼 큰 민족음악학 학회와 행사가 유치되었던 것은 선생 같은 세계적 학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일찍이 선생의 업적이 세계에 많이 알려져 있었으며, 또한 그의 학문하는 태도는 많은 서구의 음악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이 제 26차 회의에서 그를 중심으로 한 노력에 의해서 당시 '국제민속음악학회(International Folk Music Council)'라는 이름의 학회명이 '세계전통음악학회(International Council for Traditional Music)'로 바뀌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의 수준이 서양의 민속음악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우수한 것임을 세계에 천명하고 세계의 음악학자들이 인정할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과 학문적 업적을 기려 1992년에 영국의 더햄(Durham) 대학에서 그에게 명예 음악박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그의 정년 퇴임 이후의 여타의 논문들은 네 번째 논문집 『한국음악논집』(1985)으로 묶여졌다.

“

정제된 경제적 글로만 채워져 있는 방대한 분량의 그의 저서와 논문들은  
놀라운 지적 탐구와 학문애의 정열의 결과물이다. 모두가 국악 연구의 필독서이다.

그러나 선생은 아직도 그 흔한 개론서나 입문서는 쓰지 않았다.

빈 구석이 많은 것을 공연히 글로 남겨서

후학들에게 조금이라도 혼란을 줄까 우려해 일부러 안 쓰는 것 같다.

”

1981년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최초로 한국 음악사학 전공의 박사 과정이 생겼다. 선생은 한국 정신문화연구원의 객원교수로서 학문 후속 세대 양성에 힘을 쏟았고, 그 결과로 이 분야의 많은 젊은 박사들이 배출되었다. '80년대 이후의 그의 후진 양성 노력과 병행한 그의 연구는 점점 더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1987년에는 고악보 연구의 한 전형인 모노그래프 『정간보의 정간 대강 및 장단』을 발표하였고, 한편으로 19세기의 대표적 고악보인 『삼죽금보(三竹琴譜)』의 역보에 착수하여 오랜 뒤에 『삼죽금보 역보 및 주석』(1998)으로 결실을 맺게 된다.

팔순을 넘긴 '90년대에 계속된 연구는 그의 다섯 번째 논문집 『한국음악논고』(1995)로 나타났고, 그와 병행하여 첫 번째 발표한 논문집의 보유나 『국역 악학계법』의 수정·보완 같이 지난 업적을 돌아켜보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로 『보정(補訂) 한국음악연구』(1996)와 『신역 악학계법』(2000)이 차례로 출판되었다. 1998년 선생은 구순을 맞이하였다. 구순을 기리는 기념 논문집 『이혜구 박사 구순기념 음악학논총』에는 수십 명의 국내외 학자들의 글과 작품이 헌정되었다. 구순을 넘긴 선생은 지금도 연구 중이다.

## 학문적 성과와 업적

선생의 저서와 논문을 총괄하여 살펴보면, 대개

몇몇 분야에서 그의 업적이 특히 두드러지는데 각 분야의 연구 방법과 업적은, 후학들의 연구의 귀감이 되고 있다. 첫째로 그는 국악의 연구를 수많은 조선시대의 고악보(古樂譜)를 분석하여 실증적으로 접근하였다. 그의 최초의 논문이 조선 중기의 거문고 악보인 『양금신보』의 여러 악조(樂調)를 분석 고찰한 것이고, 이후 쓰여진 수많은 논문과 저서가 고악보에 기하여 쓰여졌다. 사실상 악보에 대한 관심은 일생 동안 그의 논문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고, 최근까지도 이에 관한 그의 연구는 『삼죽금보의 역주 및 주석』(1998) 같은 역저를 발표할 만큼 계속 이어졌다. 중요한 고악보를 역보하여 그것을 현전의 전통음악과 비교 고찰하는 것은 옛 악곡의 생성과 변천 과정을 파악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현행 악곡의 발달 과정과 그 구조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것이다. 악보를 사용하고 분석하는 이러한 연구방법은 음악학의 본령에 해당한다고 선생은 그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둘째로 기초 사료의 번역과 주석 작업을 들 수 있다. 대표적 업적은 『악학계법』의 국역이다. 그는 수십 년에 걸쳐서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여 『신역 악학계법』(2000)을 완성하였다. 그 외에도 그의 논문에는 "세종실록 소재 아악보서"와 같은 중요한 옛 기록의 현대어로의 역주가 많이 있다. 이러한 기초 사료에 대한 그의 관심과 연구로 이 분야도 국악 이론의 중요한 연구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

사실 선생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러나 그냥 모르는 것은 아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에 대하여 벌써 자료를 찾아보지 않은 것이 없다.

그의 책을 보면 온통 새끼말게 메모가 되어 있다.

아직 합당한 해답을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더 확실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논의를 유보하고 있는 경우가 보통이다.

”

셋째로 한국음악과 관련이 있는 중국 음악과 일본 음악의 비교 연구이다. 논문 “일본의 기가쿠(伎樂)와 산대가면극”, “고구려음악과 백제음악의 국제성” 등과 같은 한·중·일 삼국의 고대의 음악 교류에 관한 문헌 고찰뿐만 아니라, 고려부터 전해지고 있는 궁정음악 중의 보허자 또는 낙양춘과 그 오리지네 해당하는 중국의 사곡(詞曲)과 일본 토가쿠(唐樂)와의 악보 비교 고찰이나, 또한 악보 분석을 통한 일본 “사이바라(催馬樂)의 고타시(五拍子)” 등은 동양 삼국 전통음악의 생성과 전파 및 구조의 비교라는 연구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이 분야에서 연구하는 후학들의 화두가 되었다.

넷째로 위와 같이 일생을 통하여 매진한 두드러진 분야 외에도 그는 전통음악의 다양한 연구 대상에 대한 연구의 초석을 놓았다. 예컨대 일찍이 1944년에 독섬 건너의 청수골(현재의 청담동)에서 지내는 경기 지방의 도당굿을 현장 조사하여 후에 발표한 “무악(巫樂)연구”라던가, 고대(古代)의 범패(梵唄) 관련 기록을 토대로 하고 범패의 악보적인 동음집(同音集)을 처음 발굴하여 분석하는 등 불교음악 범패를 폭넓게 다룬 “신라의 범패”와, 광대(廣大)의 습속과 판소리의 유래를 고찰한 “송만재의 관우회” 등은 각각 그 분야 연구의 효시로서, 모두 후학에 의하여 그 연구가 발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특기할 만한 사실은 그의 논문 중에는 특히 한국음악의 구조에 관한 것이 많다는 사실이

다. 음악은 근본적으로 악보에 기록될 수 있는 구조(構造)적인 면과 기록되기 어려운 정취(情趣)적인 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먼저 악보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면을 논의하는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로 국악의 여러 악곡들이 갖는 특성과 나아가서 중국이나 일본 음악과 다른 한국음악만이 갖는 구조적 특성이 상당 부분 밝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폭넓고 깊이 있는 선생의 연구는 그 자체로 국악학이란 학문의 연구대상과 방법 및 범위에 대한 후학들의 나침반이 되었고, 그의 연구 논문은 문학사 역사학 등의 인접 분야의 연구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1981년 세계전통음악학회의 기초 강연에서 선생은 음악학을 다음처럼 정의하였다.

『근층학자가 나비의 수집 정리 분류, 나비의 색깔의 다른 점에의 주목, 나비의 색깔과 서식처와의 관련해서 보호색(保護色)의 학설을 세운 것같이, 음악학의 목적도 음악을 수집 정리 비교하여 상이의 이윽을 설명하는 학설의 수립이라고 생각한다. 비교에 의한 불변 부분과 변화 부분의 식별, 그 변화 이유의 설명이 연구의 목표라고 생각한다. 학문 또는 문제는 비교에서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의 학문의 특징은 그러므로 귀납법적이고 실

증주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늘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 때만 그것을 연구하는데, 그것은 그의 초기 학문이 음악을 기록한 고악보에서 출발하였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때문에 그는 학문에 있어서 만큼은, 자신에게도 또한 다른 학자들에게도 엄격하다. 특히 『정간보』 등의 연구와 관련해서는 선부른 결론 도출을 경계한다. 후학에게 “착실하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급하게 선입견이나 가설에 의하여 사실이 틀렸다고 사실을 왜곡하려 드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선생의 글은 매우 간결하다. 논리가 정연하고 요점과 핵심이 분명하다. 흔히 한번쯤 더 설명하는 부연도 있을 법한데 일체 없다. 쓸 데 없는 말은 거의 없다. 흥분하여 써내려 간 곳도 없고 자랑 투의 문장도 물론 없다. 그 글은 낙엽을 털어 버린 나무 같고 의대 강의실의 스펙레톤 같다. 그러나 그의 글을 전성으로 읽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곰곰이 차근차근 읽어야 한다.

이처럼 정제된 경제적 글로만 채워져 있는 방대한 분량의 그의 저서와 논문들은 놀라운 지적 탐구와 학문에의 정열의 결과물이다. 모두가 국악 연구의 필독서이다. 그러나 선생은 아직도 그 흔한 개론서나 입문서는 쓰지 않았다. 빈 구석이 많은 것을 공연히 글로 남겨서 후학들에게 조금이라도 혼란을 줄까 우려해 일부러 안 쓰는 것 같다. 그만큼 그의 학문은 신중하며 겸손하다.

국악학계와 국악 교육에 끼친 선생의 영향은 새삼 거론할 것도 없이 지대하다. 전국 대학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국악과 교수와 젊고 유능한 학자들이 서울대학교 등의 석·박사 과정에서 공부한 그의 제자들이다. 이들 중에는 지덕을 겸비한 스승 이해구 선생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선생은 평소에 학생들의 작은 질문에도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

은 물론이고, 당장에 적절한 해답이 없으면 여러 날 동안 숙제처럼 공부한 후에 답변에 임한다. 학생들의 레포트까지도 밤을 새워 읽고 노트를 달아서 반드시 되돌려 준다. 때문에 간혹 학생의 질문에 모른다고 솔직하게 대답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많은 학생들을 감동시킨다.

사실 선생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러나 그냥 모르는 것은 아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에 대하여 벌써 자료를 찾아보지 않은 것이 없다. 그의 책을 보면 온통 새까맣게 메모가 되어 있다. 아직 합당한 해답을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더 확실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논의를 유보하고 있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러니 아는 게 지꾸 많아지면 거꾸로 의문도 더 많아진다. 하나를 배우면 둘을 안다는 속담과는 반대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두 가지의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 그것들이 매일 쌓여서 이제는 산더미 같은 문제들과 씨름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이해구 선생은 공부 이외의 다른 욕심은 하나도 없는 분 같다. 평생을 한결같이 공부만 하였고, 지금도 서재에서 하루종일 책과 벗하고 글을 쓴다. 그는 1991년 서울대학교에서 제정한 ‘자랑스런 서울대인’에 제일 먼저 선정되었을 만큼, 드물게 존경 받는 스승이고 이 시대의 선비의 표상이다. **이해구**

#### 황준연

서울대 음악대학 국악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국악 이론으로 석사 학위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한국음악사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산대 예술대학 국악과 교수, 뉴욕 대학의 방문교수, 일본 오차노미즈 여자대학의 방문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는 서울대 음악대학 교수로서 서울대 동양음악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 『영산회상연구』 및 다수의 논문이 있다.